일체제불과 우리 육의 조상의 마음이 둘이 아니다

☞ 19면에서 계속

유는 하나님은 내 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내 님이라고 하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체, 한 그릇 할 때 한 그릇이듯이 하나로 이 세상 천체가 돌아간다 해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어떠한 종교를 막론해 놓고 말입니다. 나는 불교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불교 아닌 사람이 없는데, 불교로 오라 가라 그 말이 왜 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로 그 이름에 끄달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이름이 될 때는 이 이름으로 쓰고 저 이름이 될 때는 저 이름으로 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한생각에 의해서 생각을 내면 바로 문수가 되고, 몸이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세 이름이 따로따로 있으면서도 따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름에 끄달리지 마시고 직접, 내가 목마르면 물 마실 것이고 가고 싶으면 갈 것이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나쁘다, 좋다' 이러한 것에 여념이 없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하면 벌써 이 마음의 도리, 부처님께서 진짜 한 찰나, 불이 번쩍할 때 '이것이 찰나다' 하신 그 공부는 못하십니다. 빛보다 더 빠른 한생각의 찰나는 여기 앉아서 저 문간을 나가는 그 시간이나, 지금 미국을 가서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는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생각에 갔다 올 데를 지금 모두 갔다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여기 앉아서 집에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안 갔다 와지나. 고거와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들은 다 '불자'입니다. 승복을 입고 머리 깎은 사람만 불자가 아닙니다. 불은 생명의 근본이요 자는 여러분의 몸이니까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불자입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내 집 네 집 찾지 말고 사랑합시다. 사랑이란 두 글자를 한데 떨어뜨리지 말구요. 모두가 사랑이라는 그 두 글자를 너무 쉽게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를 않나, 요만한 걸 가지고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지를 않나, 지금 모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질 않나.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아쉬운 것은 대학이나 모든 학교의 문을 좀 넓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돈으로 학교를 지어서 학교 문을 좀 넓히고 나가는 문은 좀 좁히고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이 죽을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공부 못 해서,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모두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행동하지 못해서, 늙은이든 젊은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모두, 앞으로 대학을 가야만 산다는 그 욕구 때문에 애를 쓰고 있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기술 방면으로 나가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취직도 잘되고 봉급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시대가 되도록 좀 넓게 보시고 행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걸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좀 더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또 젊은이들을 키워 나가는 데도 핵심적인 문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과서도 마음의 핵심으로부터 나가야 하고 요. 유치원생부터 마음의 교과서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애를 쓰고 벌어다 공부를 시키는데 감사하지 않으냐?" 하고 가르쳐서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먹게 하고 어른들은 자기 부모에게 또 감사하면서 먹게 하고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일체제불과 우리 육의 조상들의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의 마음도 둘이 아니요, 부처의 마음도 둘이 아니요, 우리 전체의 마음도 부모들의 마음도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볼 때 자기가 대신 죽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되길 바라고, 부모는 언짢은 걸 먹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선지식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큰마음의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만 됩니까? 머리 깎은 스님이 아니더라도 사대 성인들의 그 마음들이 전부 한마음이니 어찌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둘이 아닌 것이 바로 한마음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부처님을 찾지 않고 한마음 주인공을 찾게 하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부처님 전에 가서, 칠성한테 빌면 명이 길다고 했으니까 명을 빌고, 또는 산신각에 가서 빌면 무슨 일이 잘된다고 해서 빕니다. 재판이 걸렸을 때나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신중단에 가서 또 신중 기도를 드립니다. 또는 좋은 데로 가게 해 달라고 지장한테 빕니다. 우리 불교가 조선 시대 때에 그렇게 탄압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는 그런 기복적인 것을 개선하고 자력 신앙을 정립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신계의 훌륭한 역군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컴퓨터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차를 움직이더라도 그것을 굴릴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할 수 있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정신력이 돼야 불국토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불국토라는 것은 불교인만의 불국토가 아니라 정신계에 바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며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얻는 것을 불국토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나 이름에 속아 모두 그냥 배타적이 되어서야 어디…. 현재 우리 국민은 반쪽짜리 셋방에 들어서 사는 거와 같은 실정인데 온전한 한 집을 마련하려면 그 아리따운 마음, 둘이 아닌 도리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죽으로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몸 떨어지고 말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그 사랑은 아주 없어지는 거죠. 한데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깊은 속으로 '네가 잘돼라.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하고 돌아갈 때 그 마음도 같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어지지 않는 거 같지만 바로 전력이 전달이 되듯이 마음도 전달 아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할 것은, 지금 병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기 위해서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것은 바로 본래자성불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말했던 것은 자성불을 가르치기 위해 이 몸뚱이 안에 모든 생명,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몰아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지배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병이 나더라도 '거기서 병이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병이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맡겨 놓으란 말입니다.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모두 타의에다가 그걸 맡겨 놓고 야단들을 하는데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 주처에 맡겨 놓으십시오. 컴퓨터에 입력된 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하기 위해서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병이 났으면 바로 약사가 되시라 이 겁니다. 병이 났으면 바로 '아하,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 이러면 그게 한마음으로 뭉쳐서 약사가 됩니다.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 하듯이 그렇게 바뀌진다, 화한단 말입니다. 그게 천백억화신 보살들이 다 행하는 바로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서 못 해!' 하지 마시고, 실험을 하고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힘을 기르시고, 여러분도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모르는 게 죄지 누가 죄가 있겠습니까? 업보가 붙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병고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병고를 일으킨 거죠. 회사만 망해도 병이 듭디다. 회사만 망해도 뭐, 간이 나빠졌느니 당뇨병이 걸렸느니 백혈병이 걸렸느니 온통 야단이 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 자기 몸뚱이 의식 하나 이끌어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사람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종교든 나는 배척을 안 합니다. "여기로 오너라. 불교로 오너라." 이러지도 않고 "거기로 가거라." 이러지도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거길 가더라도 좋고 여길 오더라도 좋고, 오직 "주처를 안으로, 내면에 둬라." 이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름을 가지고, 꼬리표를 가지고 분별을 하고 탓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저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자기 인체 내의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깥으로 끄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체 속에도 광력이 있고 전력이 있고 통신력이 있고 자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치료할 수 있다니까요! 속에서 병이 난 거를 바깥에서 치료를 해 봐야 그게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닷속에도 태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파도가 이는 겁니다. 그래야 고기들이 다 살 수 있으니까요. 괜히 파도가 이는 줄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흙 속에도 다 지수화풍이,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온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보석이 생기기도 하고 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땅속에서 석탄, 기름이 다 생길 수 있듯이 우리가 그것을 잘 연구한다면…, 연구하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픈 재료가 있다면, 가난한 재료가 있다면, 안 되는 재료가 있다면, 또 우환 재료가 있다면 바로 실험을 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재료!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니 그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해 보세요. '바로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이 알아서 해라. 거기서 고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믿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근본도 슬며시 찾을 겁니다. 근본은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것이 바로 근본이에요. 허허허…. 끌고 다니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너무 가까워서. 요위 속눈썹하고 요 아래 속눈썹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깝게 있으니 그 눈썹을 볼 수가 있나요? 에유!

이 세계, 삼천대천세계의 일체를 잘 요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으뜸가는 부처요 자유인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2월 23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